

그리스도인 20.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Christian 20. How are Christians justified?

1.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롬 3:24)

여기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그 스스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by his grace, 딤후 3:7)

2.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이다.

내가 말하노니,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의로우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롬 3:26)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 되신다. 우리가 얻은 의롭다함은 예수님을 믿어 얻은 것이다.

3.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분은 믿음에 의해 할례자를 의롭게 하시고 또 무할례자도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한 하나님 이시니라.(롬 3:30)

동일한 방법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by faith), 믿음을 통해(through faith)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상관없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적용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4. 그리스도인은 그가 한 **일과 상관없이**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롬 4:5)

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가 한 일과 상관없다. 아무리 경건치 않다 해도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5.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by his blood, 롬 5:9)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분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6.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의롭게 됨이 입증된 사람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키지셨느니라.(롬 4:25)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에 넘겨지셨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죽음,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다. 아무리 그분이 죽으셨어도 그분에게 죄가 있다면 소용이 없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셨을 뿐, 그분에게 죄가 없기에 사망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죽은 채로 썩어져 감을 보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희생이 흠 없는 자의 희생으로서 죄인을 대신하기에 충분하셨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다.

7.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justification of life, 롬 5:18)

의롭게 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얻은 것, 그런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의롭게 된 것이다.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은 무슨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순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 누리는 것이다.

어떤 성경교사가 한 말을 소개한다. ‘칭의 즉, 의롭다하심은 죄인을 조금도 다르게 만들지 못한다. 칭의는 죄인을 율법 앞에 의롭다고 선언한다. 죄인은 물론 선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령은 성화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하여 의롭다하심을 얻은 죄인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먼저 칭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두자. 칭의는 우리의 상태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혹은 위치와 관계가 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런 위치도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될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Saviour)와 대속주(Redeemer)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무죄로 풀려나 의롭다하심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의롭게 되는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고자 한다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잘 읽어보라.

²³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²⁴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²⁵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화해 헌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참으심을 통해 전에 지은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고, ²⁶내가 말하노니,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의로우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